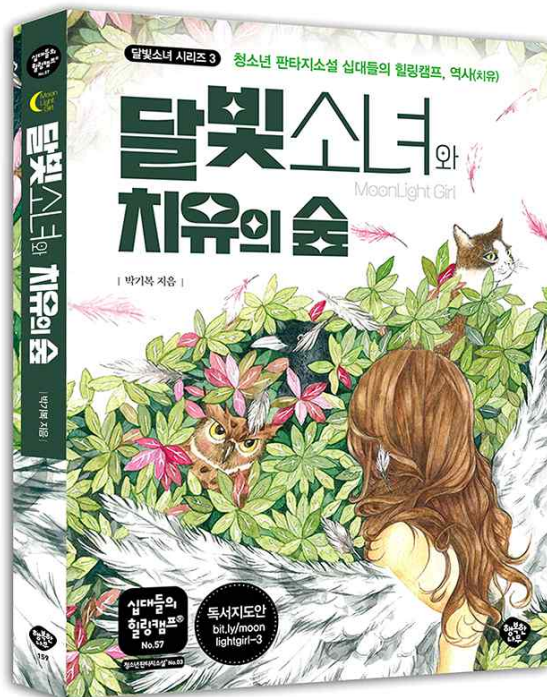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생)

달빛소녀와 치유의 숲

청소년 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역사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212쪽

주제어 : #치유 #역사 #민간인학살 #자존감 #열등감

분 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달빛소녀와 치유의 숲

청소년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역사

구성

활동	수업	활동 제목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2차시	•거침없이 쓰기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참고자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읽기 중 활동	3차시	• 줄거리 정리하기 • 잠깐 멈춤! 생각! • 옮겨 쓰고 낭독하기	•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4차시		•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5차시		•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읽기 후 활동	6차시	• 내용 이해하기 • 나와 연결하기 • 깊이 이해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7차시	• 토론하기	•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8차시	• 생각 확장하기	•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참고자료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독후감 쓰기	9차시	• 독후감 쓰기 준비 • 독후감 쓰기	• 편하고 쉽게 독후감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10차시	•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제목] 제목에 쓰인 '치유'라는 단어를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2. [앞표지] 여러분이 기억하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앞표지] 표지 그림이 주는 느낌을 적어보세요.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민간인학살	#인정욕구	#나이트호크(Nighthawks)

책과 친해지는 습관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읽기를 멈추고 골똥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똥히 생각해 보세요.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1> 모두 내 탓이다		
<02> 이상한 쌍둥이 남매		
<03> 감춰진 고통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유리는 가장 믿고 의지해야 사람을 불신합니다. 믿음이 사라진 관계 속에 살면 어떨까요?

점점 버티기가 힘들었지만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내 사정을 알지 못했다.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이런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꼬이게 만든다. 엄마가 알면 사태가 더 복잡해질 게 뻔했다. 바쁜 아빠에게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말하면 법으로 해결하려 들 사람이었다. 선생님은 신뢰가 가지 않았다. 학생들끼리 갈등이 벌어졌을 때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내가 참으니 폭력은 점점 심해졌다. - 23~24쪽 -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4> 내 안에서 울리는 소리		
<05> 신비한 능력자들		
<06>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옹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옹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아나요?

- 잘 안다면 자신이 파악한 자기 자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 잘 모른다면 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신을 시선 바깥으로 빼내야 한다. 나를 잃어야 내가 보인다. 내 안에 갇혀서는 나를 제대로 모른다. 나를 초월해야 한다. 예술이란 나에게서 벗어나는 작업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가 모르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표현 하나, 조사 하나 다르지 않았다.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이다. 예술은 결국 나를 알기 위한 것이다. 나를 알기 위해 나를 벗어나야 하는 숙명을 안고 사는 존재가 예술가다.”

89~90쪽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7> 나는 외롭다		
<08> 안개가 피어오르는 밤		
<에필로그> 위험한 선택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읽어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옮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 있다면 어떨 때 외로움을 느꼈는지 자세히 적어 보세요.
- 없다면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 적어 보세요.

“네가 사람이니?”

엄마는 갑자기 험한 말을 쏟아냈다. 나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다. 흘려보내려 했지만 욕을 듣고 있자니 독기가 감정을 건드렸다. 단우가 옆에 있다면 좋겠다. 단우와 얘기하고 싶다. 단우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 하필 그럴 때 단우가 없다니…….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는 혼자다. -172~173쪽

내용 깊이 이해하기

사람은 그 크기는 다르지만 누구나 상처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어떤 상처는 삶을 뒤 흔들 만큼 깊어서 오랫동안 아픕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겪었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곪아서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이해해 봅시다.

【질문1】 우리가 받은 상처 중에서 가장 깊고, 영혼에 새겨진 아픔은 무엇인가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대화는 없었다. 엄마와 싸우고 나간 날이 다시 떠올랐다. 왜 그리 싸웠는지 아직도 모른다. 더없이 다정하던 아빠는 그 뒤로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아빠는 집에서 없는 사람이었다. 돈만 벌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다. 엄마보다 아빠를 훨씬 좋아했던 나는 아빠가 엄마와 헤어지기를 바랐다. 엄마와 헤어지면 아빠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믿었다. 기대와 달리 아빠는 엄마와 헤어지지 않았다. 이미 남남이면서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로 계속 살았다. 부질 없는 짓이었다. 그리워한다고 돌아올 옛날이 아니었다. 내 어릴 적 아빠는 사라지고 없었다.

102~103쪽

엄마와 단둘이 도시락을 먹었다. 밥 먹는 내내 어색했다. 도시락을 먹던 엄마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나를 건드렸다.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이 나도 모르게 진흙을 비집고 흘러나왔다.

“엄마는 왜 그런 거야?”

“뭘 말이니?”

반찬을 집는 엄마 손이 느려졌다.

“왜 언니만 사랑해?”

엄마 손이 멈췄다.

“나는 엄마 딸이 아니야?”

엄마가 반찬을 내려놓더니 나를 물끄러미 봤다. 표정에 담긴 속마음을 읽으려고 했지만 전혀 읽히지 않았다.

“밥이나 먹어.”

엄마 손이 다시 움직였다.

“나는 엄마 딸이 아니구나.”

“이상한 소리 그만해.”

“이상한 건 엄마지 내가 아니야.”

엄마는 더는 내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 178쪽

【질문2】 꼴등 입학은 왜 유리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나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그림을 좋아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곧잘 그림을 그렸다. 좋은 그림을 보면 녀를 잃었다. 책을 보면 글보다 삽화에 눈이 갔다. 자연스럽게 꿈도 그림 쪽이 되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은 술하게 받았다. 칭찬에 인색한 엄마도 내 그림 솜씨만은 인정했다. 자존감은 바닥이었지만 그림을 그릴 때면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거치면서 자신감은 다시 열등감으로 바뀌었다.

입시에 자신 있었다. 다들 인정할 만큼 실력도 갖췄고, 중학교 내내 관련 활동도 많이 했고, 실기 시험도 잘 치렀고, 면접도 나름 잘 봤다. 합격은 당연하다고 믿었다. 결과는 내 기대를 배신했다. 나는 떨어졌다. 깊은 절망에 살아갈 힘마저 잃었다. 미술을 포기하려고 했다. 밥도 안 먹고 계속 잠만 잤다. 그러다 연락이 왔다. 한 명이 등록을 포기했단다. 혹시 등록할 뜻이 있냐고 했다. 엄마는 내게 묻지도 않고 등록을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술고등학교 미술과에 ‘꼴찌’로 들어갔다. 모든 합격생 가운데 최하위, 그게 내 위치였다. 내 실력이었다. 김창원 선생님도 내가 꼴찌로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마 다른 선생님도 다 알 것이다.

개인과제는 내게 기회이자 위기였다. 내 실력이 꼴찌가 아님을 증명할 기회, 그러나 다시 꼴찌가 된다면 단단히 낙인찍힐 위기이기도 했다. 다시는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65~66쪽.

귀를 막았지만 둘이 나누는 험담은 계속 이어졌다. 숨이 막혔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시러 가기가 겁났다.

“지수 넌 어때?”

“지수도 같이 있단 말인가?”

“혼자 하면 제 실력이 드러나겠지.”

“그치! 세화랑 너한테 얹혀간 주제에 잘난 척은....”

“꼴등으로 들어왔으니 곧 바닥을 드러낼 거야.”

지수 입에서 꼴등이라는 말이 나왔다. 날카로운 칼이 가슴을 찔렀다. 심장에서 뿜어진 피고름이 온몸으로 퍼졌다. 이가 덜덜 떨렸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온몸이 깊은 나락으로 빨려들었다.

168~169쪽

“넌 내가 꼴등으로 들어온 거 알지?” 지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세화하고 그런 대화도 나눴지?” 여전히 답변이 없었다.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꼴등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

지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나한테 중요해. 나를 그딴 식으로 보는 너희들 시선이 늘 나를 따라다녔어. 뒤에서 몰래 내 험담을 해대면서 나만 못된 년으로 몰지 마. 너만 정의로운 척하지 마.”

189~191쪽

【질문3-1】 우리가 느끼는 '익숙한 감정'이란 무엇인가요?

결국 세화는 자만풍에 들어왔다. 다들 세화를 반겼다. 세화는 금방 스며들더니 점점 모임을 주도했다. 작품도 뛰어났다. 세화 작품에 견주면 내 작품은 초라했다. 작품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모두 나보다 잘났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지수 때문에 속이 상했다. 짝지어 활동할 때 지수는 세화랑 같이 움직였다. 지수를 세화에게 빼앗긴 것이다. 세화는 내게서 몽땅 빼앗아갔다. 생강이도 단우도 지수도 모두 세화에게 빼앗겼다. 나는 늘 빼앗긴다. 나는 늘 그렇다. 행복은 잠깐이었다. **익숙한 감정**이 다시 나를 지배했다.

74쪽

【질문3-2】 '세화만 없었다면 모두 내가 누릴 행복이었다.'는 유리의 판단은 타당한가요?

나는 세화가 미웠지만 다른 애들은 세화를 좋아했다. 생강이는 아예 다가오지도 않았다. 간식을 들고 가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 반면에 세화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심지어 간식을 주지 않아도 세화에게 가서 애교를 부렸다. 다른 애들은 다가오기만 해도 경계하면서 세화에게겐 모든 걸 허락했다. 단우도 세화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일반 교과수업 시간에 단우는 늘 칼을 만들었는데, 세화가 말을 걸면 작업을 멈추고 대화를 나눴다. 우연히, 아주 우연히 본 장면인데, 심지어 자기가 만든 칼을 세화에게 주기도 했다. 저 모든 게 원래 내가 차지할 자리였다. **세화만 없었다면 모두 내가 누릴 행복이었다.** 세화는 내 인생에 찾아든 악몽이었다.

98쪽

【질문3-3】 여러분은 타인으로 인해 마음 깊이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질문4】 고독은 유리에게 왜 처절한 아픔을 줄까요?

‘대도시는 고독한 공간이야. 콘크리트가 벽을 가르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지. 그게 도시야. 늘 수많은 사람과 부딪치지만 아무도 나와 깊은 관계는 없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작은 연민조차 혹시 모를 상처가 걱정되어 재빨리 거둬들여야만 하는 불안은 도시를 지배하는 공기야. 에드워드 호퍼가 그린 <Nighthawks>는 바로 그런 고독한 순간을 표현하는 그림이지. 호퍼가 그려낸 고독은 단순히 대도시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아니야. 이 그림의 핵심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야. 화려함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야. 여기에 담긴 빛은 모든 사물, 현상, 인물에 어울리지 않게 밝아. 그 밝음이야말로 대도시에서 늦은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처한 마음과 소외를 드러내는 역설이야. 밝음이 지나치면 어둠보다 고독해.’

문득 아침 햇살이 떠올랐다. 고통 속에 맞이한 아침 햇살은 희망보다는 절망이었다. 차라리 그림자가 내게는 위로였다.

‘더는 강렬하기 어려운 밝음은 이 카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켜.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만 빛은 무자비하게 진실을 드러내지. 화려하지만 고독하고, 무수히 많은 이들을 만나지만 외롭고, 꿈을 좇지만 허망한 존재들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 낮이면 그 고독이 태양빛에 가려지겠지만, 밤이기에 감출 수 없어.’

<Nighthawks>는 바로 나를 표현한 그림이었다. 내가 바로 Nighthawks였다

‘호퍼는 이 그림에서 고독과 갈망을 동시에 드러내. 고독은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게 막아. 그렇지만 고독해야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져. 이 모순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안고 살아가야 할 숙명이야.’

- 92~93쪽

지수가 나가자 설움이 더 크게 밀려들었다.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애들에게 들킬까 봐 턱이 저릴 만큼 이를 악물고 울음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놀러도 놀러도 새어나오는 눈물만은 막을 수가 없었다. 호퍼가 맞았다. 밝음은 도리어 어둠을 드러낸다.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내 어둠이 드러나지 않는데, 빛으로 나오니 내 어둠이 속속들이 드러난다. <Nighthawks> 안에 있는 고독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내가 바로 개미였다.

- 99쪽



Nighthawks.

@에드워드 호퍼. 1942년

토론하기

글(가)에서 단우 엄마는 유리에게 ‘아무도 널 좌지우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리는 ‘남이 나를 어찌지 못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

“제가 그럼 무슨 귀신에 빙의라도 됐다는 말인가요?”

“그와 비슷하지. 그렇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빙의 같은 건 없어. 귀신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지닌 의지나 감정에 상관없이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 귀신은 인간보다 약해. 빙의는 인간이 나약해졌을 때 귀신이 지닌 잔류 감정과 공명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빙의는 없어. 그저 나약함이 있을 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너는 밖이 어떨지 두려워해. 그러나 밖은 안이 없으면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해. 쉽게 말해서 **아무도 널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네가 벗어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자유야”

자유라는 말은 반가우면서도 낯설었다. 그러나 **남이 나를 어찌지 못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웠다. 엄마도, 언니도, 선생님도, 나를 괴롭히던 애들도 모두 나를 뒤흔들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다.

- 147쪽

(나)

“단우가 뭐라고 하던가요?”

“초등학교에 잠깐 다녔을 때 겪었던 사건, 고등학교에 가서 너를 다시 만난 이야기, 뭐 대충 그런 얘기였어.”

“제가 별로라고 했겠죠....”

단우와 세화가 친하게 지낸 일이 떠올랐다.

“단우가 그랬어. 너는 강한데 자신이 한없이 약한 줄 안다고.”

예상치 못한 평가였다. 나는 늘 약했다. 실력도 약하고 힘도 약하다. 언니한테도 당하기만 하고, 엄마 뜻에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하면서 지냈다. 그런 내가 강하다니...

“유리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 뭔지 알아?”

바로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었다.

“바로 생각이라는 감옥이야. 사람이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히면 꿈쩍도 하지 못해. 생각이 지옥이면 삶도 지옥이 되고, 생각이 뼈뿔어지면 세상이 다 뼈뿔어져 보여.”

가슴이 먹먹해졌다.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약한 거야. 교수님이 그랬잖아. 빙의란 없다고 단지 나약함만 있을 뿐이라고. 네가 스스로 나약하다고 믿고, 어떤 거대한 힘에 너를 의지해서 네가 겪는 불행을 한 방에 없애려 한다면, 그 틈바구니로 악령이 끼어들어. 어찌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악령일 거야. 공포는 밖에 없어. 공포는 밖에서 오는 외풍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는 독버섯이야.”

나는 창문을 내렸다. 후덥지근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150~151쪽

□ 단우 엄마 / 권민지	□ 유리
아무도 너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뒤흔들 수 있다.

■ 내 주장의 근거

■ 친구들의 근거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 잠깐! 고전 읽기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서 옳지 않다면 누더기를 걸친 비천한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옳다면 천군만마가 쳐들어와도 나아가 용감하게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큰 길을 걸어간다. 뜻을 얻으면 함께 그 길을 가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길을 간다. 부귀해져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가난해도 의지가 변함이 없고, 위세와 권력에도 내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

생각 확장하기

【질문1】 왜 우리는 '역사의 상처'와 '자신의 상처'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세상에!'

소름이 짝 끼쳤다. 계곡 바닥에 뼈와 해골이 장작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위쪽 경계선에서 보는 현장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곳이 진짜였다. 진짜 학살 현장이었다. 발굴단은 조심스럽게 흙을 치웠고, 그때마다 뼈가 늘어났다. 구덩이가 많았는데 구덩이마다 뼈와 해골이 수북했다. 저절로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던져 넣는 장면이 떠올랐다. 썩은 고기처럼 버려지는 몸통이들이 보였다. 비릿한 피 냄새 위로 흙과 돌이 쏟아졌다. 파리가 끓고 까마귀가 울었다. 구역질이 나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고 도망쳤다. - 68쪽.

언니는 내게서 엄마를 빼앗았다. 엄마는 내게서 아빠를 빼앗았다. 괴물 같은 엄마들은 내 편이던 단우와 단아를 빼앗아버렸다. 그 뒤에도 몇 번인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조금이라도 나와 가까워지는 친구가 생기면 누가 빼앗아갔다. 그럴수록 나는 그림에 매달렸다. 그림을 그릴 때면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림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예술고 입시에서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다행히 예술고에 와서 지수를 만났다. 단우도 만났다. 생강이도 만났다. 새로운 세상이었다. 새로운 관계였다. 새로운 삶이 열렸다. 그런데 세화가 내 소중한 관계를 다 훔쳐 갔다. 세화가 내 삶을 망가뜨렸다. 언니처럼, 엄마처럼, 그 괴물 엄마들처럼...

그리고 보면 내 삶은 늘 피투성이였다. 피비린내를 참으며 구역질을 견디며 살았다. 시체처럼 까마귀가 내 살을 파먹어도 참았다. 검은 피가 발자국을 남겨도 버티며 살았다. 내 삶이 바로 학살 현장이었다. 나는 이미 처참한 시체였다. - 78쪽.

지수가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털썩 주저앉았다.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왔다. 아빠가 엄마와 격렬하게 다투고 짐을 싸 들고 나가버린 날 밤, 외로움에 처절하게 떨던 어린애가 되살아났다. 나는 여전히 그날 그 아이였다. 무력하게 불안에 내던져진 아이, 공포에 짓눌렸지만 내색할 수 없던 아이, 세상이 무너질 듯 한 상실감에 떨면서도 표현할 수 없던 그 아이였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엄마가 미웠다. 그날 밤, 언니는 엄마한테 가서 아양을 떨었다. 어쩌면 그날, 엄마는 내 속마음을 알아챘는지도 모른다. 자기 편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딸을 엄마도 미워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중략)

밭끝에서 고통이 피어올랐다. 총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이만은 죽이지 말아달라는 절규가 들렸다. 시체가 몇 구인지를 세며 흠뻑리는 잔인한 웃음이 들렸다. 피 울음과 잔인함이 뒤엉켰다. 고통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희뿌연 안개 같은 고통도 함께 느껴졌다. 벽에 묻은 얼룩이 뭉개지며 붉은 안개가 퍼졌다. 일본말이 들렸다. 채찍이 공기를 가르고, 살갓이 떨어져 나갔다. 독립군이 숨은 곳을 자백하라고 일본경찰이 강요했다. 누더기를 걸친 조선인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모른다고 저항했다. 다시 공기가 찢어지고 피가 튀고 살갓이 뜯기는 고통이 파고들었다. 고통이 허리를 삼켰고, 딱딱하게 굳었다. 192~193쪽

【질문2】 상처와 고통, 억울함과 박탈감으로 고통 받던 유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유리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며, 그 방법은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봅시다.

(가)

1등은 우리가 차지했다. 아니 내가 차지했다. 모둠과제 1등이었다. 내 이름이 공식 조사보고서에 들어간다. 생활기록부에도 자세하게 실린다. 내 삶에 빛나는 별이 생기는 것이다.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던 상처가 깨끗이 회복된 기분이었다. 나는 더는 꼴찌가 아니다.

1등을 했는데도 지수는 기뻐하지 않았다. 아마 세화 때문일 것이다. 내가 마지막에 한 행위가 못마땅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지수 생각이 어떻든 나는 큰 성취를 이루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꼴찌이라고 놀리지 못할 것이다. 엄마에게 자랑할 경력이 생겼다. 잘난 언니를 놀려줄 무기도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맛보는 성취감이었다.

-123쪽

(나)

“네가 이상한 소문을 퍼트렸잖아!”

“내가 무슨 소문을 내?”

“이게!”

세화가 내 뺨을 때렸다.

느닷없는 공격이었다. 갑자기 속에서 불이 일었다. 힘겹게 누르고 살았던 아픔이 터져 나왔다. 자기밖에 모르는 언니, 정이라고는 없는 엄마, 사막보다 멀어진 아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던 악마들, 나를 속이고 멀어진 배신자들, 그리고 빼앗긴 지수, 빼앗긴 생강이, 빼앗긴 단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억울함이 부글부글 끓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굳어지며 화가 치솟았다.

“너 따위가 감히...”

내 입에서 나온 소리였지만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주변이 하얗게 변했다. 내 눈에는 오직 세화만 보였다. 갑자기 세화가 부들부들 떨었다.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중략)

세화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변했다. 저러다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잠깐 했다. 다행히 걱정은 걱정으로 끝났다. 선생님이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차가 왔고, 세화가 실려 갔다. 지수는 선생님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세화는 그 꼴을 당하면서도 지수를 내게서 가져가 버렸다. 세화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못된 심보가 꿈틀댔다. 잔인한 복수심이였다. 뒷산 민간인학살 현장이 떠올랐다. 무수한 뼈들이 수북이 쌓인 그 참혹한 현장 위로 세화 시체가 었어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이러면 안 돼!’

내 잔인한 상상에 스스로 놀랐다.

‘심유리,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113~115쪽

(다)

귀가 울렸다. 아빠 엄마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서로를 향해, 시퍼런 칼날을 품은 모진 말이 오가는 싸움이였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는 아빠, 그런 아빠를 저주하는 엄마, 엄마에게 가서 아양을 떠는 언니, 그날 벌어진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모두 미웠다. 특히 아빠가 미웠다. 자기만 바라보는 딸을 내버려 두고 가 버린 아빠가 미웠다. 돌아온 뒤, 단 한 번도 따스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아빠가 미웠다. 차라리 이혼하지, 희망이라도 버리게. 지수도 세화도 미주도 예서도 자만풍도 다 미웠다. 뒤에서 나를 씹는 모든 인간이 다 미웠다. 읍내에 산다는 성범죄자들도 미웠다. 모조리 죽여 버리고 싶었다.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192~193쪽

Q2-1. 제시문 (가) (나) (다)는 유리가 선택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세요.

(가)	(나)	(다)

Q2-2. (가) (나) (다)에서 선택한 복수의 방법은 유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질문3】 유리는 폭주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터트리지만, 결국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유리가 찾은 치유의 숲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봅시다.

Q3-1. (가)에서 (나)로 바뀌며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가)	<p>“약해, 이름처럼, 여전히.” 떨림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넌 지나치게 약해. 거기다 착해.” 단아가 입술을 오므리며 쪽 내밀었다. 표정은 귀여운데 차갑고 무서웠다.” “약하고 착하면 안 좋은데...” 단아가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다.</p>	39~40쪽.
-----	---	---------

(나)	<p>은별이 속삭였다. “너 자신 말고는 아무도 너를 어찌지 못해.” (중략) 은별이와 민지 언니 부축을 받으며 건물을 나오니, 땀에 흠뻑 젖은 단우와 단아가 걸어왔다. 안개는 여전했지만 사악한 기운은 사라지고 없었다. 단우가 다정하게 다가오더니 내게 수호환을 건넸다. 「누」가 꿈틀거렸다. 내 의지로 내리눌렀다. “나는 나야. 너는 내 안에 속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누」를 눌렀다.</p>	207~ 208쪽
-----	--	-----------

Q3-2. 유리는 (다)처럼 하면 열등감이 치유될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라)일 때 훨씬 만족감이 컸습니다. 우리가 (다)보다 (라)일 때 훨씬 더 행복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1등은 우리가 차지했다. 아니 내가 차지했다. 모둠과제 1등이었다. 내 이름이 공식 조사보고서에 들어간다. 생활기록부에도 자세하게 실린다. 내 삶에 빛나는 별이 생기는 것이다.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던 상처가 깨끗이 회복된 기분이었다. 나는 더는 꼴찌가 아니다.
 1등을 했는데도 지수는 기뻐하지 않았다. 아마 세화 때문일 것이다. 내가 마지막에 한 행위가 못마땅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지수 생각이 어떻든 나는 큰 성취를 이루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꼴등이라고 놀리지 못할 것이다. 엄마에게 자랑할 경력이 생겼다. 잘난 언니를 놀려줄 무기도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맛보는 성취감이었다. -123쪽

(라) “내려가야지. 업혀.”
 단우는 또다시 내게 등을 내어주었다.
 “너도 다쳤잖아.”
 “나는 괜찮아. 뽀 발목으로는 산을 못 내려가.”
 어쩔 수 없이 단우 등에 업혔다. 나는 단우에게 업혀 산길을 내려왔다. 참 행복했다. 낮에 2조를 걷고 1등을 했을 때보다 더. -139쪽-

Q3-3. 유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유리를 치유한 힘은 무엇인가요?

“네 엄마가 꼭 좋은 사람은 아니어도 돼. 엄마가 널 미워할 수도 있어. 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슬픈 일이 지, 엄마를 믿을 수 없다니. 하지만 엄마도 그냥 사람일 뿐이야. 엄마라고 특별하지 않아. 그냥 한 사람일 뿐이야. 나와 인연이 조금 깊은, 조금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 뿐이야.”
 심장에서 낫선 바람이 불었다.
 “이 살갓 속에 숨은 상처는 죽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어.”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러지 마. 너 자신을 아껴. 너는 별이야. 어설피지만 이 안개를 뚫고 빛나는 별이야. 그걸 믿어. 이 겨울을 뚫고 너는 꽃으로 피어날 거야.”
 회오리가 심장을 벗어났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바람은 피를 타고 몸 구석구석으로 번졌다.
 은별이가 손을 놓자 내 손이 툭 떨어졌다. 은별이가 나를 감쌌다.
 “너를 기다리는 봄은 아름다울 거야. 너를 잃어버리지 마.”
 목에 피가 걸렸다. 피멍울이 목구멍을 짝 채웠다. 은별이 나를 더 세게 껴안았다.
 “헉!”
 목구멍에 걸린 피멍울이 구토와 함께 넘어왔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낫선 소리가 새어 나왔다. 울음이었다. 다섯 살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울음이 내 안에서 흘러넘쳤다.

나는 울었다.
다섯 살 어린 나를 위해 울었다.
오랜 시간 다섯 살로 살며 시련을 겪은 나를 위해 울었다.
이유도 없이 군인들 총에 맞아 죽은 영혼들을 위해 울었다.
이 방에서 일제 경찰에 고문당하며 죽어간 분들을 위해 울었다.
울음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고통이 울음이 되어 흘러나왔다.
신경 말단 곳곳에 새겨진 설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206~207쪽.

Q3-4. 역사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까요?

나는 울었다.
다섯 살 어린 나를 위해 울었다.
오랜 시간 다섯 살로 살며 시련을 겪은 나를 위해 울었다.
이유도 없이 군인들 총에 맞아 죽은 영혼들을 위해 울었다.
이 방에서 일제 경찰에 고문당하며 죽어간 분들을 위해 울었다.
울음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고통이 울음이 되어 흘러나왔다.
신경 말단 곳곳에 새겨진 설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 (중략) ...

붉은빛이 안개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더니 숲으로 물러났다.
안개는 점점 작은 꽃잎으로 피어나더니, 은은한 별빛이 되어 밤하늘로 날갯짓했다.
학살당한 영혼들이 별나라로 돌아가고 있었다.

206~208쪽.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흔히 독후감은 '동기-줄거리-감상', 또는 '요약-인상 깊은 장면-경험·감상'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만 쓰니 독후감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형식'을 택하면 독후감 쓰기도 쉽고, 내용도 신선합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1)형식을 택하고, 2)형식에 맞는 준비를 한 다음, 3)핵심 요령을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쓰면 됩니다. 초고를 쓴 뒤에는 쪽 읽으면서 부드럽게 고치기만 하면 독후감이 완성됩니다.

형식선택	준비항목	독후감을 쓰는 핵심요령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편지 쓰기 형식에 맞춰서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책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담는다.(신변잡기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여는 글 : 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인터뷰 취지를 쓴다. • 인터뷰 : 실제 인물이 답하듯이 쓴다.(역지사지) • 닫는 글 : 인터뷰 내용 정리, 감상, 생각 등을 정리한다.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기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자기 경험을 실감나게 소개한다. • 소설과 비슷한 점을 거론하며 깨달고 느낀 점을 제시한다.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떨지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기행문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내가 소설 속 장소를 방문하거나,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흥미진진하게 서술한다.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룰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기사를 쓰는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사건소개, 인터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섞어서 쓴다. • 기사처럼 제목을 붙인다.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평가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다. • 일정한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이 평가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사고방식 등을 다룬다.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소개한다. • 한 문장이 내게 끼친 영향, 깨달음, 느낀 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세히 서술한다.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 토론주제가 나온 상황을 정리한다. • 자기 의견을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 반드시 반대 의견을 다룬다.(반론과 재반론 형식으로)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 책 내용과 시사문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소개한다. • 책에서 수립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 서평은 책 소개 글임으로 소개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설명한다. • 책이 지닌 매력과 책을 권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독후감 예시는 『청소년 독서콘서트』(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독후감 쓰기 준비

- 1단계 : 자신이 원하는 독후감 형식을 선택합니다.
- 2단계 : 선택한 독후감 형식의 준비사항①~③을
오른쪽 '준비사항①,②,③'에 각각 적습니다.
- 3단계 : 독후감에 적을 세부 내용을
각 준비사항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준비사항①~③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준비사항① 인터뷰 대상 설정 인터뷰 대상 : 설정 설치는 주요, 동인물과 정복하게 설다. 간략으로 모든 것 읽음. 어떤 인물을 골라 전 할지 고민하시다. 많이 단행본에서 골라볼게 지음. 친구가 왜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준비사항② 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이 독서에 친구들을 읽었을 때 어떤 질문이? 이 국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 국점에서 어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국점이 왜 선택을 해주셨는지 생각하셨는지?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준비사항③ 책의 성격 보기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분야에 속하나요? 이 국점에서 읽게 되어서 기쁘게 여겼습니다. 도입부에 있고, 책의 기본 이 국점은 인물들의 정복한 사상이 제일 흥미롭습니다. 이 국점을 소개하면 좋겠다. 이 국점을 읽었다. 이 국점을 읽었다. 이 국점을 읽었다.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input type="checkbox"/>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input type="checkbox"/>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input type="checkbox"/>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input type="checkbox"/>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input type="checkbox"/>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input type="checkbox"/>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준비사항①

준비사항②

준비사항③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할 때는 평가를 하지 말고 독자로서 반응해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독후감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2. 친구들이 쓴 독후감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소설>도 있습니다.